

AI와 Blockchain이 주도하는 미래

2019-10-10

송지환 미래신기술전략팀장

AI 기술 발전 역사

최근 AI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 → 여러 분야 문제 해결



전문가 시스템

논리/규칙 기반
(1950s~1980s)

- 현실 문제를 논리와 규칙으로 정의함
- (한계) 모든 문제를 논리/규칙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



인공 신경망

연결 기반
(1980s~199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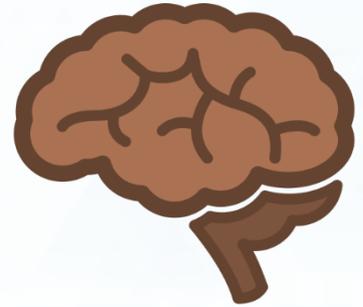
- 인간의 두뇌를 모사하여 기계를 학습시킨 후 문제 해결에 사용
- (한계) 컴퓨팅 파워가 낮고 학습 시킬 **데이터 부족**



기계 학습

통계 기반
(1990s~2010s)

- 문제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학/통계 이론으로 해당 문제를 모델링함
- (한계) 문제에 따라 모델링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문제에도 사용에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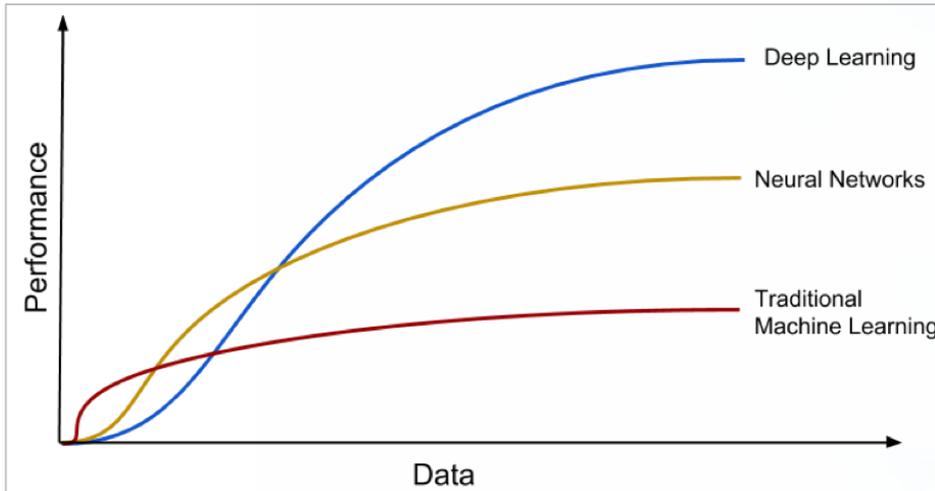
심층 학습

딥 러닝 기반
(2010s~)

- 대량의 데이터로 기계를 학습시킨 후 문제 해결
- 유사한 문제에 대해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나,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결과 좌우**

현재 AI 기술 ≙ Deep Learning 기술

Deep Learning 성공 핵심은 양질의 대량 데이터 확보가 관건



출처 : Artificial Intelligence vs. Machine Learning vs. Deep Learning: What's the Dif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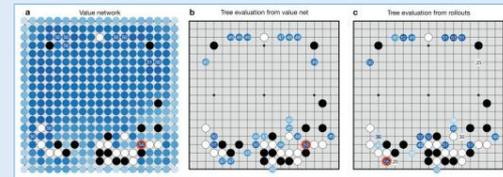
구글번역

- 하나의 언어쌍 번역을 위해 최소 **1억 개**의 문장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



알파고

- **3,000만** 가지의 바둑판 상태를 추출
→ 지도학습과 강화학습 반복



웨이모

- 시뮬레이션 주행거리 **112억 km**
실제도로 주행거리 **1,600만 km** (2018.10월 기준)
→ 주행을 통해 데이터 쌓아가며 학습



Deep Learning 품질, 입력 데이터가 좌우

양질의 대량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음 → GIGO*

* Garbage In Garbage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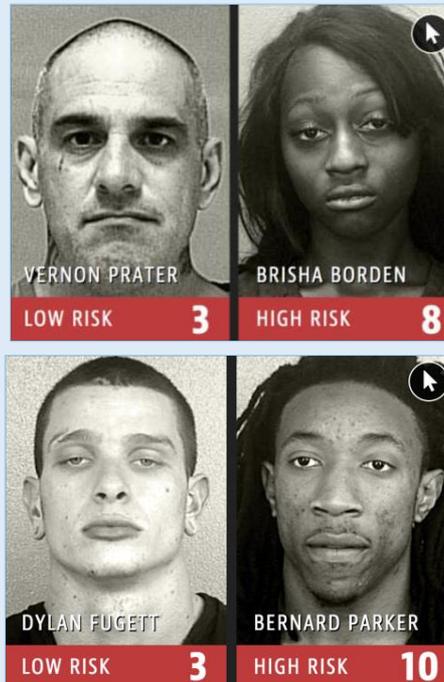
테이.ai

- 극우 성향의 사용자가 테이에게 욕설, 인종·성 차별 등을 학습시켜 테이가 이를 모방하는 문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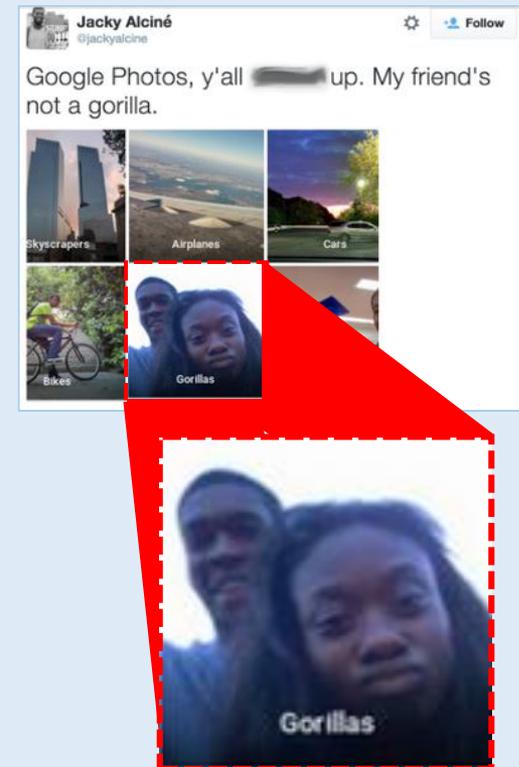
COMPAS

- 편향된 학습으로 흑인이 백인보다 범 죄율이 높고 위험하다는 편견을 보임



구글 포토

- 흑인을 고릴라로 자동 분류



양질의 데이터 보유 기업은? FAMGA*

* Facebook, Apple, Microsoft, Google, Amaz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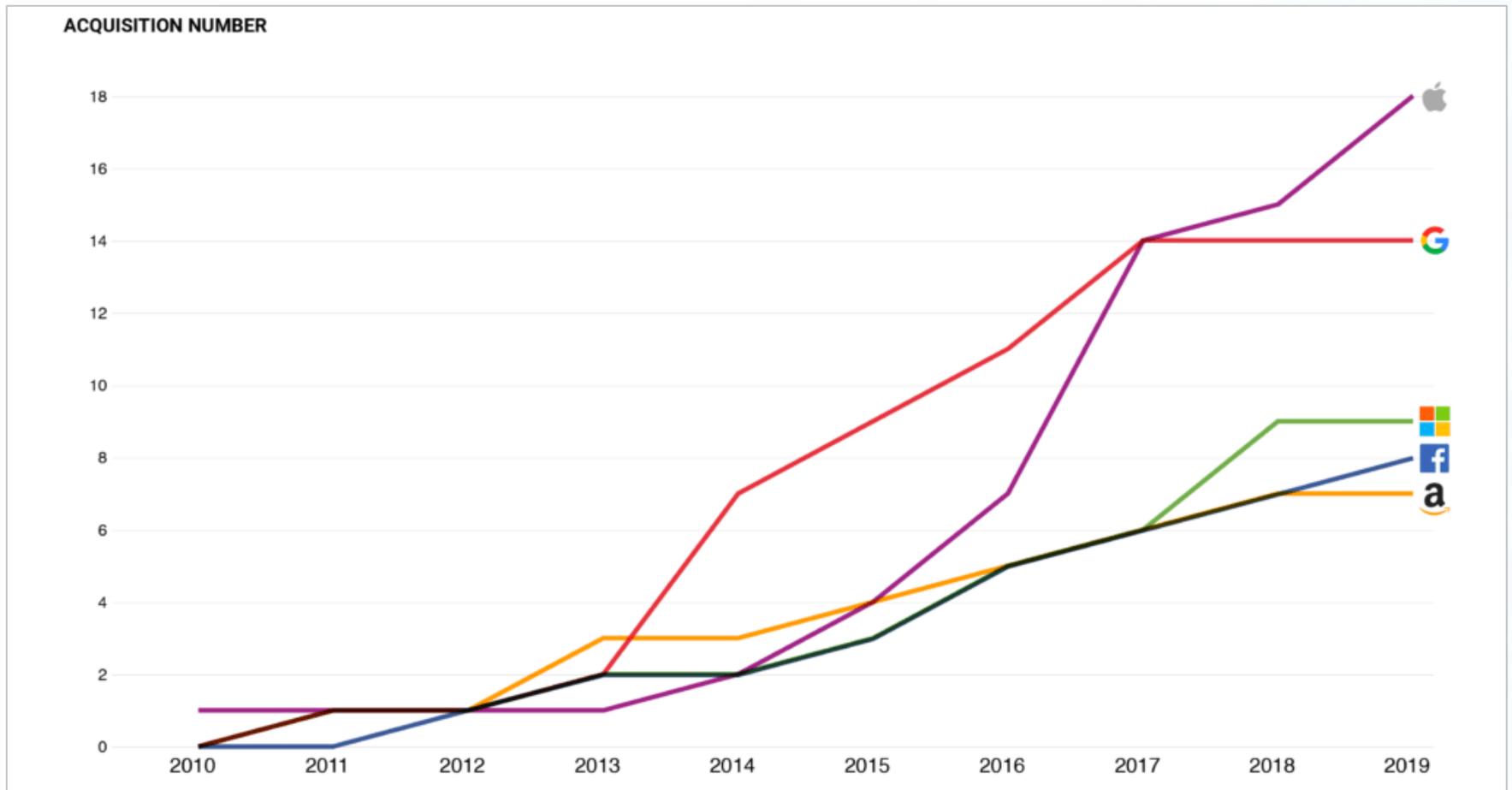
양질의 대용량 사용자 데이터 확보 기업 → AI 경쟁력도 높음

기업	Google	Facebook	Amazon
서비스 및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 메일, 안드로이드, 유튜브, 포토, 지도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전 세계 수십억 명 사용자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SNS 및 채팅 서비스 제공 전세계 20억 명 이상의 사용자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쇼핑, 온라인 서점, AWS(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1억 명 이상의 프라임 회원* 보유 * 유료회원(\$99/년 or \$12.99/월)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위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 글, 사진, 동영상, 위치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쇼핑 정보, IoT 수집 정보 등
AI 주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글홈(구글어시스턴트), 구글번역, 웨이모(자율주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챗봇, 얼굴인식, 사물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스피커(AWS와 AI결합) 
AI 핵심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텐서플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치, 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WS(폴리, 레코그니션, 렉스) 폴리 : 음성합성 레코그니션 : 이미지 인식 렉스 : 자연어 처리
핵심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딥마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이스북 AI 리서치(F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AWS

출처 : 구글·MS·IBM·아마존·애플·페이스북...불꽃튀는 인공지능(AI) 경쟁, 디지털투데이, 2017.09.04. 재구성

FAMGA, AI 관련 투자 집중

AI 관련 기업들에 대해 활발한 M&A 진행 → AI 경쟁력 제고 가속화



출처 : Where Facebook, Apple, Microsoft, Google, And Amazon Are Investing In AI, CBINSIGHTS, 2019.05.09.

(기업) AI 개발 쉬워졌다?

스타트업, AI 개발 환경 나아졌으나, 양질의 데이터 확보 여전히 어려워

Get Better

AI 개발 도구 및 서비스 플랫폼 공개

TensorFlow™

torch

IBM Watson

amazon
web services



AI 개발 도구 및 범용 서비스 이용
음성인식, 이미지 분석, 자연어 처리 등 쉽게 처리



개발사의 개발 비용 및 시간 절약!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개발사가
모든 것을 구현할 필요 없음

Still Difficult

- But 개발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는 여전히 어려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만 수집이 매우 어렵다”

- 한양대 장준혁 교수 (2017)-



“카카오톡의 메신저 데이터를 쓰면 좋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 현실”

- 스캐터랩 김종윤 대표 (2017)-

- BM관점에서 공공 데이터 활용의 한계**
→ 개인 데이터 활용이 더 많은 수익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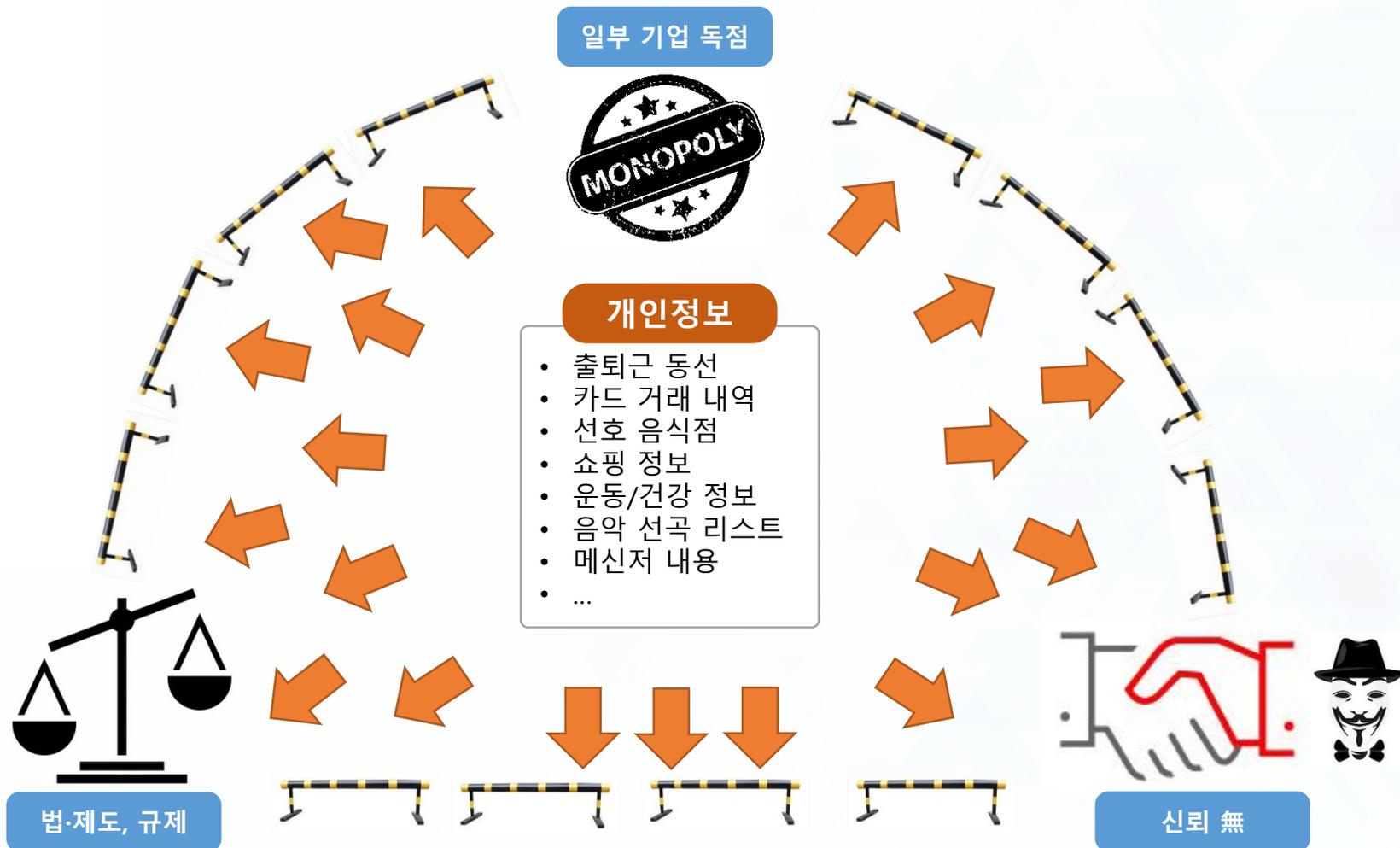


“Personal data is becoming
a new economic asset class ”

- WEF (2011)-

(개인) 개인 정보 거래 수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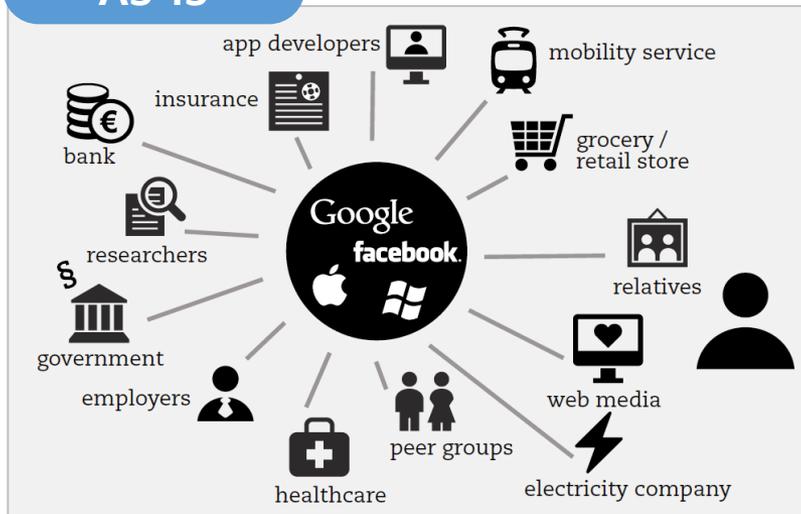
유용한 개인정보 다량 축적되어 있으나, 실상은 거래 어려워



AI 데이터 확보,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개인이 스스로 개인의 데이터를 거래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

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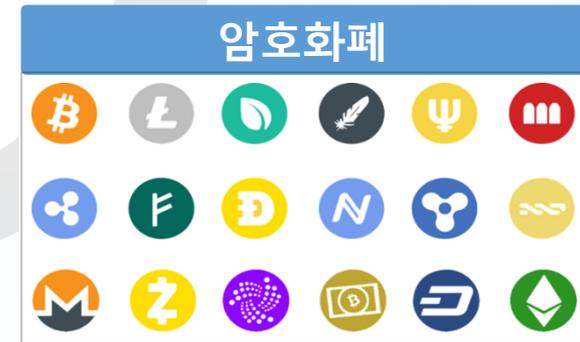
TO-BE



출처 : MyData – A Nordic Model for human-centered personal data management and processing, 핀란드 교통·통신부, 2014 재구성

블록체인 기술이 AI 발전에 도움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 정보 거래를 현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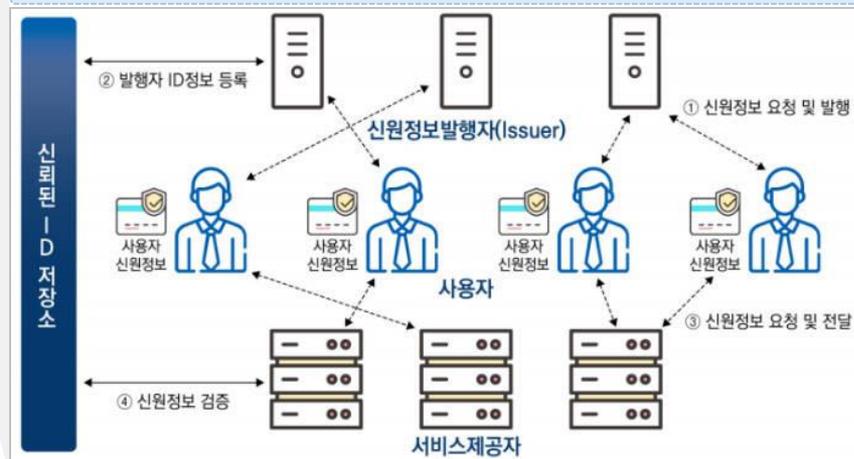
개인이 자신의 신원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기술

AS-IS

- 신원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
 -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모두의 신원정보를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
 - 대량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
 - 한곳에서 신원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이를 이용한 'Credential Stuffing' 공격 가능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TP)가 신원정보 증명
 - TTP가 신원정보를 증명할 때마다 수수료 발생

TO-BE

-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
 - 신원정보 요청 시 본인 정보를 개인키로 서명하여 제공
 - 개인이 직접 정보를 관리하여 **대량 신원정보 유출 가능성 없음**



출처 : 분산ID 개념 및 해외 기술개발 동향, 금융보안원, 2019 재구성

스마트 컨트랙트 (Smart Contract)



거래 당사자가 계약상 조건을 설정, 해당 조건 달성 시 제3자 개입 없이 자동 거래 실행

블록체인 특성

변경 불가능
Immutable

결정적
Deterministic

신뢰/투명
Trustworthy/Transparent

탈중앙성
Decentralized

가용성
Available

스마트 컨트랙트

기록된 거래 조건 및 결과는 변경 불가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거래 성사

거래 조건/결과에 임의 수정 불가 및 공개

분산된 여러 노드에 거래 조건/결과가 동일하게 기록됨

분산 노드의 특성상 높은 가용성 유지

적용분야

- 다수 비즈니스 참가자 간 빈번한 거래
- 절차가 복잡하여 승인이 지연될 수 있는 거래
- 계산이 복잡하여 수작업 시 오류 가능성이 높은 거래



AS-IS

- 거래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변호사, 중계인 등)
 - 거래 수수료 발생
 - 거래 위반 발생 가능
 - 손해 발생 시 보험, 소송 등 추가 비용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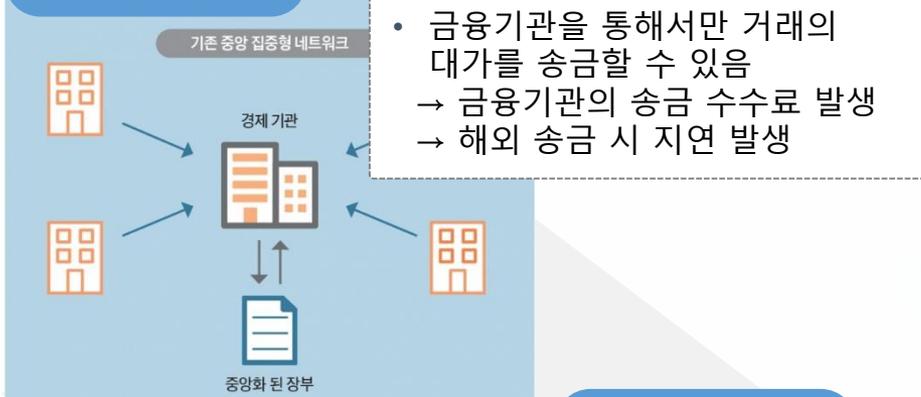
TO-BE

- 계약내용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거래 조건이 만족되면 거래가 자동으로 수행됨
 - 거래 자동화로 승인·절차 등에 의한 **지연**과 **human-error 없음**
 - 저렴한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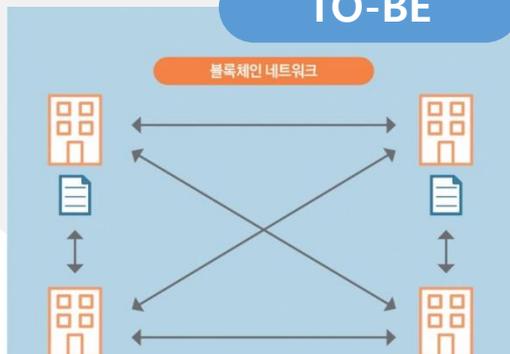


제3의 중개기관(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없이 개인 간 가치 교환에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

AS-IS



TO-BE



-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없이 개인과 개인이 거래의 대가를 주고 받을 수 있음
- 중개인이 없어 환전, 거래 등의 **수수료가 낮음**
- **국제적으로 사용하기 편함**

암호화폐들



출처 : [암호화폐 규제 강화로 더욱 주목받는 블록체인] 모든 산업을 혁신할 인프라 기술, 중앙시사매거진, 2018 재구성

- **은행, 결제회사 등 제3의 중개기관 없이 개인과 개인이 가치를 주고 받는 디지털 자산**
-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
-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으로 이중지불 문제를 중개자 없이 해결
- **Bitcoin을 시작으로 Ether, Ripple, ADA, Tether, Circle 등 다양한 코인 등장**
- 최근 페이스북은 'Global Simple Currency' 목표 하는 Libra 발표

개인정보 직접 거래하자!

블록체인 기술, 정보유출, 거래사기 등의 걱정 없이 개인정보 거래 가능

분산 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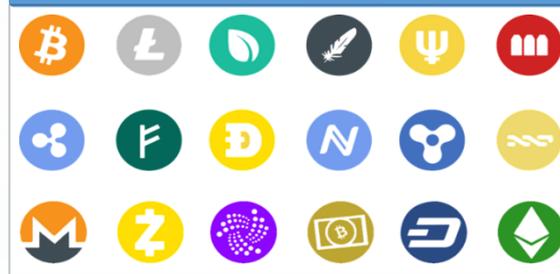
- 개인정보의 시작인 신원정보부터 개인이 직접 관리 가능
- 타인의 신원을 위조하여 타인의 개인정보 거래가 불가능

스마트 컨트랙트



- 개인은 개인정보가 필요한 기업과 직접 거래 진행
- 빠르고 정확한 거래 가능
- 개인정보 거래 브로커 배제로 수수료 절감 및 부당·불법 거래 차단
- 기계-기계(M2M) 거래 용이
-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기업 입장에서 직접거래로 법적 책임 경감

암호화폐



- 거래 대가를 암호화폐로 교환
-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동하여 디지털 거래에 최적화
- 암호화폐 사용으로 국가 장벽 최소화
- 환전·송금 수수료 절감

(예시) AI 기업 위한 개인정보 거래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 거래 플랫폼으로 AI 기업은 필요한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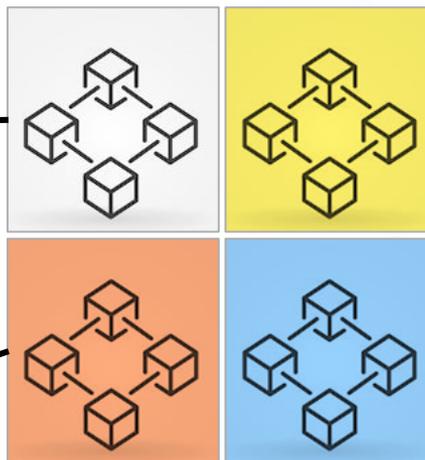
개인(판매자)

① 거래 조건 등록

- (DID 생성)
- 개인정보 거래 조건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상세히 코딩 (공개 항목, 공개기간, 가격 등)

④ 거래 대가 수령

- 스마트 컨트랙트 거래 성사로 개인정보 거래에 대한 대가가 구매자로부터 자동으로 송금됨 (암호화폐로 받음)



기업(구매자)

② 거래 조건 확인

- 필요한 개인 정보인지 확인
- 필요한 경우 가격, 공개 기간, 사용제한 등의 조건 확인

③ 거래 대가 지급

- 스마트 컨트랙트 거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 (암호화폐로 대가 지급 포함)

그 외 AI+Blockchain 융합 미래는?

분산 슈퍼컴퓨터

- **블록체인 참여 노드의 컴퓨팅 파워 이용**
→ 이더리움 플랫폼처럼 분산월드컴퓨팅 개념
- **필요한 컴퓨팅 파워에 맞게 리소스 대여**
→ 높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AI 기업은 최소 비용으로 높은 성능의 컴퓨팅 리소스를 대여하여 사용 가능

신뢰 이슈 해결

- **인공지능 간 통신을 모두 기록**
→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를 블록체인에 모두 기록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구축 가능**
→ 인공지능의 자체 결정으로 발생한 이슈 확인 시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이용 가능
→ 블록체인의 특성상 기록에 대한 신뢰가 높아 고신뢰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음

HELP US BUILD A DISTRIBUTED SUPERCOMPUTER



What AI blockchain can do here is to help you out to build a distributed supercomputer. Users on the network can lend their computing power, and by connecting them, it can become a supercomputer in no time.

SOLVE THE TRUST ISSUE



Blockchain would be able to track the AI's communication with other instances. Thus, it can rebuild your trust in AI, and you would be able to depend on it safely.

보고서 5편, 동향/컬럼 14편, 컨퍼런스/포럼 2회 등 블록체인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보고서

- 테크핀과 암호자산의 시대(2019)
- 공공서비스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산 방안 (2018)
- 토큰 경제와 블록체인의 미래(2018)
-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산업적·사회적 활용 전망 및 시사점 (2017)
- 비트코인2.0 - 기술 및 산업 전망 (2015)



동향/컬럼

- 블록체인 사업을 위한 기업 간 협력 확대 (2019)
- 2019년 블록체인을 기다리는 당면 과제 (2019)
- 블록체인 기술과 SW 생태계의 발전 (2018)
- 블록체인과 예도(銳刀) 둔도(鈍刀) 이야기 (2018)
- 중국의 블록체인 진흥 현황과 시사점 (2018)
-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과제 (2018)
- 비트커넥트 사례로 보는 렌딩코인 이슈와 시사점 (2018)

-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에 대한 동향과 현안 (2018)
- 가상화폐 투기 근절, 거래소 폐쇄만이 정답인가? (2018)
- 비트코인 거래소, 해커와 절도범으로부터 안전한가 (2017)
-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 사례 (2017)
- 블록체인 투자 및 활용 동향 (2017)
- 분산처리의 끝판 블록체인, 신뢰 구축 도구로 (2017)
- 비트코인 거래, 왜 한 시간 기다려야 하나? (2017)

컨퍼런스/포럼/기타

- 블록체인, 이제 산업이다 (포럼, 2018)
- 블록체인 기술발전 전략(과기정통부, 2018.06.) 수립 지원
- 블록체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컨퍼런스, 2017)
-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 블록체인의 원리 (발표, 2016)





감사합니다
Q & A

